

영원을 바라보며

Looking to Eternity

베드로전서 4:7-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2월 29일 설교

⁷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⁸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땅의 것을 하늘로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어떤 갑부가 목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때 돈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혹 없겠습니까? 그 목사가 뭐라 대답했다 했지요? 갖고 갈 방법은 없는데 미리 보내놓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보내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제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구제를 하는 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보화를 천국에 잔뜩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 지옥으로 가거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셨습니다만 주님이 공간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땅은 여기 아래 있고 하늘은 저기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여러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습니까?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은 기본이지요. 주식이나 CD도 사 놓고 보석을 사기도 하고 각종 보험도 들고 또 침대 밑에 돈다발도 보관합니다. 안해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의 일부를 떼 내어 구제를 하면 그건 하늘에 쌓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죽을 때 갖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구제를 하면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되어서 훗날 천국에 가서 찾아 쓸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하실 때 땅에 쌓아두면 무슨 문제가 있다 하셨습니까? 좀이나 동록이 보물을 상하게 하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기도 한다 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안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아먹는 게 좀이고 녹슬게 하는 게 동록입니다. 도둑이 훔쳐 가 버리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요. 돈이든 보물이든 내 수중에 있어야 좋은 거고 특히 앞날에 대비해 갖고 있는 건데 없어질 수도 있다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쌓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걱정이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없어질 보물 붙들고 있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헛된 걸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걸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단테의 <신곡>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걸 사랑하느라/ 영원한 사랑을 벗어던진 사람은/ 끝없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천국 15, 10-12.] 참 평범하지요? 그래서 <신곡>이 대작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구절입니다. 오래 가는 게 있고 오래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오래 가지 않는 걸 선택한 사람들은 슬퍼할 거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끝없이 슬퍼할 거라 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게 뭐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첫째가 돈이지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힘이지요. 권력, 높은 자리,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하지요. 꽃은 잘 가야 열흘 피어 있고 권력이라는 것도 잘 해야 십 년 간다는 말입니다. 쾌락은 더 그렇지요. 몸으로 즐기는 쾌락도 마음으로 누리는 즐거움도 다 얼마 못 갑니다.

오래 가는 건 그럼 뭐니까? 단테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 같은 것 말고 오래 가는 걸 추구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어떤 게 그런 겁니까? 나라사랑 같은 건 귀하지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 바친 분들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이런 분들을 우리는 모두 존경합니다. 또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우러러 받들지요. 친구들 사이의 우정, 의리, 또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오래 가는 것에 듭니다.

긴 것과 영원한 것

길고 짧은 걸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인생이지요. 긴 쪽입니까 짧은 쪽입니까? 허무한 인생. 덧없는 삶이라 부릅니다. 이유는 짧다는 거지요. 이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했습니다. 삼천오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수명이 많이 길어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 살고 없어집니다.

인생은 짧은 반면 긴 것도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을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그랬다 하지요. 보통 이 말을 영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이 길다 해서 음악이나 미술은 오래간다는 말로 알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이라 한 건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인생은 짧아서 익힌 기술을 써먹기도 전에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배울 건 많은데 인생은 짧구나 하는 한탄입니다.

좀 긴 것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오백 년을 갔습니다. 고대 로마는 천 년도 넘었습니다. 식물 가운데 수백 년을 사는 것도 있다 하지요. 말 그대로 깁니다. 그런데 길다고 해서 영원하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옵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물론 있지요.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백 년도 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건 다른 것보다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것, 우리 사람처럼 살아서 숨을 쉬는, 이른바 생물은 하나같이 끝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죽어야 한다는 한 가지는 생물인 이상 모두가 똑같습니다.

시작의 불길함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요. 죽어야 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어 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불길합니다.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에는 희망도 담기고 활기도 넘치는 것 같은데 시작되는 순간 끝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 끝을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습니다. 무생물은 그럼 영원히 갑니까?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무생물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시작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는 한 끝도 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창조라 부르지요. 무생물은 영원히 그러니까 끝도 없이 간다고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입니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은 시작이 있었던 만큼 끝도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목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무생물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도 그렇지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가끔 생깁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못 가지요. 혹 좀 간다 싶어도 마음껏 즐기지는 못합니다.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끝이 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미리 생각 나기 때문에, 신나게 즐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긴 명언이 하나 있지요?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carpe diem)’이라는 문구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인생을 살 때 나름 괜찮게 써먹을 수 있는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인가

배울 건 많은데 인생은 짧구나, 이걸 깨닫는 건 지혜에 속합니다. 카르페 디엠도 지혜라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보다 한 차원 높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 짧은 줄 우리도 알고 현재를 즐기는 게 좋은 줄도 다 알지만 그 걸로는 참 지혜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끝은 다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왜 허무합니까? 거기는 영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이 뭘니까? 보통 시간이 끝도 없이 흘러가는 게 영원인 줄 압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이 아닌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니까? 어제 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요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도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지요. 우리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지금 안 죽으면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오늘도 내일도 계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에 동시에 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요. 과거는 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하고 똑같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랜 뒤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볼 때는 수백 년 뒤에 나타나신 것 같았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현재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상태, 시간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 천 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천 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지혜입니다. 이게 왜 지혜입니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게 다 인생이 짧아 그런 건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으로 갈 수만 있다면 짧은 이 인생이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하구나 합니까?

일단 거꾸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천 년 전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건 부모님 찾아뵙듯 차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의 세계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살던 낙원이 에덴동산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바로 우리 주님 은혜로 갑니다.

그 좋은 곳에, 그 영원의 세계에 그럼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길을 내셨으니 그 길로만 가면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신 그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이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뭐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땅에 안 쌓으면 됩니다. 재물은 쓰라고 있는 건데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순간 그 재물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사랑이니깐요. 똑같이 말 한 마디를 했는데 속이는 말을 하면 그대로 사라지겠지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바른 길로 가게 돕는 한 마디를 한다면 그 한 마디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왜요? 사랑이니깐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건 무엇이든 하늘에 쌓입니다.

사랑이 남는 겁니다. 사랑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구원이 뭐니까? 잠시 살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인생이 사랑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이라 사랑도 시간 안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랑이 우리를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가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걸 안 먹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니 시간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영원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몸이 시간 안에서 살지만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먹으면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으로 올라갑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몸이 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먹어도 나이 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시간을 넘어 영원의 세계로 갑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만나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끝도 없이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갑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시간이 없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악하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악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그렇게 악한 시간을 선한 시간으로 견져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사랑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견져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무슨 인격이 있다고 악하고 구원받고 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살아가는 나, 곧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악과 멸망의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구원과 생명의 시간으로 견져내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생활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저 이 한 세상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죽어서 같이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간 안을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그건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생활을 맛보는 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끝이지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을 날로 달로 해로 잘라 놓으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서 제대로 좀 살라고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도 끝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끝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해가 저무는 지금 그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왜 중요합니까? 끝은 영원과 잇닿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게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바꾸는 것도, 변하는 것도, 망설이는 것도, 다 시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영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한 복 아니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다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들 생각이 많습니다. 주로 하는 생각이 올해는 이것 못 했고 저것도 못 했고 그러니 내년에는 꼭 해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지에 썼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나누어 놓으셨으니 최소한 그 정도 유익은 얻어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아닌 최대한을 얻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난 영원을 어디서 맞을 것인지, 난 2013년 한 해를 얼마나 영원과 이어 가며 살아왔는지,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쁜 인생이지만

사는 거 다 바쁘시지요? 저도 참 바쁩니다. 이렇게 바쁘는데 영원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원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감사절에 확인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나하나 다 따져볼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 다른 모든 감사의 바탕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만 확실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이 못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늘 있으면 그냥 바쁘게 살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라 했지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이지만 아기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기쁨이고 뭐고 없었을 것이니 성탄절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니다. 이 기쁨만 있으면 살다가 아파 눈물이 나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이요 또 끝장을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원에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으로 갈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오래 가지 않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기에 하면 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영원으로 솟으며

오늘 살핀 이 말씀은 두어 주 뒤에 다시 살펴 볼 예정입니다. 이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연말인 만큼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으로 통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영원으로 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예배시간에 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이야기 한 마디를 나눌 때도 나하고 같이 영생을 누릴 사람인 줄 알고 한다면, 혹 짜증이 좀 나도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꼭 참으면 그게 바로 영원으로 통하는 순간입니다.

직장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훈련을 잘 할 수 있겠지요. 영원의 세계에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순간이 곧 영원과 통하는 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진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영원처럼 즐기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